

스리랑카, 음식이 종교 갈등의 불씨

할랄푸드(Halal Food) 인증제가 스리랑카 불교계와 이슬람교 사이의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지난 2월 7일 스리랑카 정부가 “국내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할랄푸드 인증제 참여와 관련 제품 판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불교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칼리즈타임즈(Khaleejtimes.com)는 2월 26일자 보도에서 “스리랑카 불교계가 정부의 친 이슬람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며, “수도 콜롬보의 마하라가마(Maharagama) 지역에서 24일 열린 불교계 집회에서는 수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NO HALAL’ 문구를 새긴 흰색 T-셔츠를 입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상세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집회를 주도한 ‘보두 바라 세나(Bodu Bala Sena)’ 측은 “국민의 90%가 반대하는 할랄푸드 인증제를 정부가 수용키로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인증제 시행의 주체가 정부 기관이 아닌 무슬림 NGO 단체라는 점도 간과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또한 칼리즈타임즈는 보두 바라 세나 측의 말을 인용, “오는 3월 말 시작되는 ‘스리랑카 새해 축제’ 현장에서 관련 음식의 반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 앞으로 지속적인 불매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할랄푸드”란 이슬람 율법 하에서 무슬림이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음식류를 총칭하는 용어다. 이들 음식 중에서 스리랑카 불교계를 자극하는 것은 단연 ‘육류’다. 신의 이름으로 가족을 도축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도축된 육류를



2월 24일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열린 불교계 집회에서 수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NO HALAL’ 문구를 새긴 흰색 T-셔츠를 입고 정부를 비판했다.

할랄푸드 인증제 놓고 불교·이슬람교계 긴장 고조

불교계, 3월 말까지 육류 등 정부의 인증제 철회 요구

3월 말 열리는 새해 축제 반입 금지 등 적극적인 불매운동 전개

‘축복의 음식’으로 탈바꿈시키는 시스템이 바로 ‘할랄푸드 인증제’인데, 정부가 이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갈아보다 테로(Galaboda Thero) 스님은 이날 집회에서 마힌다 라자팍세(Mahinda Rajapaksa) 대통령에게 “수백여 명의 스님들은 정부의 친 무슬림 정책이 스리랑카 내 불교계와 이슬람교의 평온을 위협할 수 있다는 데 우려하고 있다”며 “두 사회의 공존을 위해서 정부는 3월 말까지 할랄푸드 인증제를 백지화하는 한편, 추후 인증

제 논의를 개진하기 전에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증 시스템을 선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스리랑카 내에서 할랄푸드 인증서를 발행하는 곳은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무슬림 NGO인 ‘All Ceylin Jamiyyathul Ulama(이하 ACJU)’이다. 1928년 설립된 ACJU는 현재 ‘할라 위원회’를 운영하며 ‘할라 인증’에 대한 대화적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국영방송 BBC는 26일자 보도에서 “스리랑카 불교최고위원회인 ‘마

하나야케스(Mahanayakas)’의 스님들이 ‘스리랑카 무슬림 위원회(Sri Lanka Muslim Council, 이하 SLMC)’ 위원들과 자리를 마련하고 ‘할랄푸드 인증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고하고, “이번 문제가 자칫 두 종교간 갈등을 첨예화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르면 마하나야케스 측은 “할랄 인증제 도입은 두 사회를 갈등을 표면화시킬 수 있는 불씨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할랄 인증제를 시행할 경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필요한 데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불교도들은 이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인증의 주체가 무슬림 NGO인 ACJU라는 점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SLMC 측은 “할랄 인증제는 스리랑카의 두 종교 사회의 이해를 돕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사회적 반발은 스리랑카 종교부와 ACJU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SLMC 측은 “현재의 인증제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한정하고 있다”며 “무슬림의 수가 국민의 10%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들 모두 할랄 푸드를 선택할 수 있는 헌법의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할랄푸드는 전 세계 식품시장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네슬레, 맥도날드 등 다국적 기업들이 할랄푸드 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2009년 4월 한국이슬람교중앙회가 발표한 할랄 푸드 과거 중 한국 제품으로는 국희땅콩샌드, 콘칩, 빼빼로 등이 포함되었다.

오종욱 편집위원

中·서구 선교사, 티베트인 개종에 ‘혈안’

英 가디언, “티베트에 선교사 400명 거주, 전략적 선교중”



티베트 자치구 교회에서 티베트인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출처=신화통신>

영국인 크리스(Chris·가명)와 사라(Sarah·가명)는 티베트인 밀집 거주지역인 칭하이(青海)성 시닝(西寧)에 새로 단장한 방 2칸 짜리 아파트로 이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다.

“이곳에 있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마치 예술가가 새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전 흥분되는 것처럼 말이지. 이곳의 삶이 적박하긴 해도 매우 기쁩니다. 우리가 티베트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티베트가 서구 기독교 선교사들로부터 새로운 개척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곳 시닝시에만 거주하는 외국인인 400명 정도이며 대부분이 선교사로 추정되고 있다.

티베트에 있는 선교사 대부분은 특정 교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 이들은 영어 수업, 직업전문교육 등을 티베트인들에게 제공해 충성도를 높인 후 개종을 권유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그간 중국이 1949년 공산정권을 수립한 후 서방 선교사를 ‘정신적 침략’자로 규정하고 나서 선교사들을 모두 국외 추방하고 선교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해왔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월 22일(현지시간) 티베트인 밀집 거주지역인 시닝의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티베트 불교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티베트(시창·西藏) 자치구에 선택적으로 기독교 선교를 허용할 의도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며 “이런 방침에는 경제적 이유와 함께 정치적인 계략이 숨겨져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가디언은 10여 명의 소식통과 인터뷰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티베트에 기독교 선교를 허용하려는 것은 정치·경제 등 두 가지 이유에서다.

가디언은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 기독교계의 티베트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중국은 서방 선교사들이 가진 경제적 이점을 외면하기 어렵다”며 “서방 선교사들은 티베트 선교가 허용되면 현지에서 이

익이 풍부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현지 학교에서 무료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 선교사 생활비 등 최소한의 필요 경비는 외국에서 오는 현금 등으로 충당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티베트에 기독교가 전파돼 티베트 불교와 대립하기를 바라는 당국의 정치적 흥겨움이라는 관측이다.

적을 이용해 다른 적을 제압하는 중국의 오랜 전략인 이이제이(以夷制夷)를 티베트 불교 통제에 적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미국 컬럼비아대 티베트 전문가 로비 바넷은 “기독교 전파로 서방은 티베트 종교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고, 중국은 티베트 불교를 파괴하려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분석이었으나 최근 시닝에 몰려드는 서방 선교사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방 기독교 선교사들이 티베트 선교로 티베트 불교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려는 성향이 강하다면서 중국은 티베트 불교 자체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의 특정 부분을 없애려 한다고 지적했다.

선교사들은 외국인들의 티베트 자치구 관광을 제한하는 중국 정책에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기독교 전 단지를 배포하는 형식으로 선교를 했다면 현재는 크리스와 사라처럼 커피숍, 레스토랑, 게스트 하우스 등을 열어 장기 중국 비자를 확보하고 있다. 또는 의사와 자원 봉사자로 티베트에 입국하기도 한다.

이 밖에 서방 선교사조직은 티베트어로 번역된 기독교 영화를 상영하는 등 기독교 선교를 보다 전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구상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선교사들의 선교 행위에 대해 대부분의 티베트인들은 ‘역겨운 전술’ ‘뇌물’이라 비유하며 혐오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티베트인은 “티베트인들에게는 불교가 전부다. 만약 누군가가 그들의 종교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면 그것은 매우 심한 공격을 한 것과도 같다”고 말했다.

이냐은 기자



“햇볕에 거대한 탕화 말려요” “티벳 스님들이 햇볕 잘 드는 언덕 중턱에 새해의 희망을 담은 거대한 탕카를 펼쳐 놓았다.”

티벳 수도인 라사 밖에서 가장 큰 규모로 펼쳐지는 라브랑(Labrang) 사원이 2월 22일 햇볕 잘 드는 곳에 부처님을 담은 거대한 탕카(tangka)를 펼쳐놓는 일명 ‘The Basking of Buddha’ 의식을 봉행했다고 중국의 신화통신(Xinhua)이 보도했다.

이 의식은 좋은 해를 기원하는 티벳의 전통 하나로, 중국 간수성(Gansu Province) 북서쪽 샤허(Xihe) 지방에 위치한 라브랑 사원이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1709년 세워져, 현재 겔룩(Gelug)파 계열의 1천여 스님들이 대중 생활을 하고 있는 라브랑 사원은 1만여 점의 불상이 안치되어 있고, 철학·의학·역사·문학 등에 걸친 6만5000여 권의 불서를 소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오종욱 편집위원

바비인형, 심슨가족에 이어 불상도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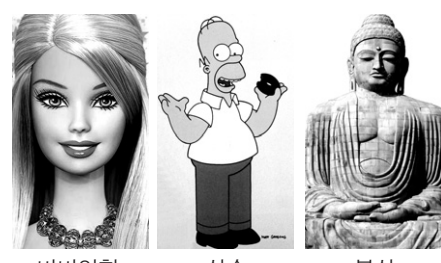
이란, 반입금지 목록에 불상 올려

이란이 바비인형과 심슨가족에 이어 불상을 반입금지 목록에 올렸다고 데일리메일이 2월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계자는 테헤란에 있는 가게들의 불상 홍보가 금지 당했다고 전했다.

이란은 서구문화의 영향력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랫동안 바비인형과 같은 장난감의 반입을 금지해왔다.

이란 문화유산 보호 공무원인 사히드 자베리 안사리는 “불상은 문화적 침략”이라고 전하며 당국이 그러한 물품들의 홍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직 얼마나 많은 수의 불상이 압수당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압수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이란인들은 장식을 위해 집이나



바비인형 심슨 불상

차에 불상이 두기도 한다. 대부분의 불상은 중국에서 만들어져 페르시아인 만에 있는 이란 자유 무역 지구에서 수입된다.

가게를 운영하는 레자 사나에는 “아무도 불교 때문에 불상을 사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저 장식용일 뿐이다”고 말했다.

테헤란에서는 2010년에도 유명한 이란인들의 조각상이 사라진 사례가 있었다. 이 사건은 인간의 형상을 한 조각을 거부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이라고 비난받았다.

이냐은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텝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